



수학여행 전 성희롱·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

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 가정 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·성폭력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수학여행지, 소풍, 체험학습 중에서 만날 수 있는 성인남자 및 동급의 남학생 및 여학생 등 성희롱·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의 성희롱·성폭력에 대한 지침을 읽어보시고 가정 내 교육에 힘써 주시고 본교에서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서로에게 예로서 대하고 인격을 존중하여 즐겁고 뜻 깊은 체험학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◎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

1. 이런 것이 성적언동입니다.

☞ 육체적 성적 언동

- ▶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
- ▶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
- ▶ 가슴,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
☞ 언어적 성적 언동

- ▶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
- ▶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
- ▶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
- ▶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- ▶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
- ▶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

☞ 시각적 성적 언동

- ▶ 외설적인 사진, 그림, 낙서,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
- ▶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, 사진, 그림을 보내는 행위
- ▶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

☞ 기타

- ▶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

2. 성폭력 예방 행동요령을 습관화 하자.

- ▶ 선생님의 허락 없이 개인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.
- ▶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다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.
- ▶ 누군가 나의 몸을 만지거나 싫은 느낌이 들면 도망을 가거나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한다.

3.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

☞ 반드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도록 한다.

- ▶ 대부분 성희롱을 행한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함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게 된다.
- ▶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(**즉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**)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친구들을 부른다. 혹은 그 자리를 피하도록 한다.

☞ 항의를 한다.

- ▶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을 중지하는 것이다. 성희롱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일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.

☞ 반드시 친구 3-4명과 짝지어 다니도록 하며, 야간에는 어디든지 가지 않는다.

☞ 만일의 경우 인솔 선생님이나 부모님, **여성위기전화(국번 없이 ☎1366)**로 빨리 도움을 요청한다.

◎안전 및 응급처치 요령

1. 요양호자 및 환자 확인

- 신체 허약자는 체험학습으로 인한 무리가 없도록 사전에 알린다.
- 치료약물을 복용중인 학생은 체험학습 중에도 복용하도록 한다.

2. 식생활(식중독), 안전사고 예방

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만 다니고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는다.
- 신발과 옷, 소지품 등은 활동하기 편한 것으로 준비한다.
- 지정된 물만 마시고 안전한 생수를 마시도록 한다.
- 휴게소에서 **찬 음식(얼음과자, 아이스크림-배탈 설사)**을 함부로 먹지 않는다.
- **차 안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아** 상쾌한 차안 공기를 유지해서 멀미를 예방한다.

3. 멀미 예방 (멀미약은 개인적으로 준비합니다.)

- 체험학습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.
- 차안에서 먼 경치를 보거나, 잠을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.
- 승차 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고 우유나 우유가 든 음식은 먹지 않는다.
- 필요시 **멀미약 복용** -먹는 약은 출발 30분-1시간 전에, 붙이는 약은 출발 4-8시간 전에 사용.
- **합곡(엄지와 검지 사이 오목한 곳)을 지압**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.

4. 응급처치 요령

- **빠였을 때**
 - 즉시 찬물이나 얼음으로 냉찜질을 하면 통증과 붓기가 가라앉는다. 맨소래담 등으로 마사지 한 후 탄력붕대를 고정시킨다. 계속 통증이 심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면 병원에 간다.
- **코피가 날 때**
 -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, 코 뼈 양쪽을 10분 정도 눌러주면 멈춘다.
- **벌에 쏘였을 때**
 - 침을 제거하고 얼음찜질을 하거나 약(계안, 버물리 등)을 바른다.
 - 호흡곤란, 현기증이 있으면 ‘벌독(毒) 알레르기’ 이므로 빨리 병원에 가야한다.
 - 잔디에 눕거나 앉지 않는다. (**최근 살인진드기 출현**)

★ 다친 경우는 꼭 선생님께 말씀 드려 응급처치 후 심하면 빨리 병원으로 후송 하도록 합니다. ★

2014. 4. 4.

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(직인생략)